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9월 9일(토)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므타(MIKTA) 정상회동 개최(9.9)

- 므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다자주의, 국제법 준수 등
공동 가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재확인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9/9 토, 현지시간) 오후 므타(MIKTA) 회원국(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정상과 회동했습니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참석 / 멕시코는 라켈 부엔로스트로 경제부장관 대참

올해 므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동에서, 므타 회원국 정상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므타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013. 9. 유엔총회 계기 므타 외교장관회의로 출범

대통령은 므타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화와 교류를 지속해왔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믹타 회원국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믹타 회원국 간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 미래세대의 기회 창출을 위해 청년 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므타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동 계기 기후변화, 빈곤,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므타 차원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므타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주요 국제 현안 대응에 함께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별첨: 미타 공동언론발표문 원문 및 비공식 국문 번역본. <끝>